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5. 10. 22. (제 회)

의 결 사 항	
------------	--

##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

발 의 자	최두임 의원 등 11인
발의연월일	2025. 10. 21.

#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

## (최두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10. 21.

발 의 자 : 최두임, 최을석, 우정욱,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김희태, 이정숙 의원(11인)

### 1. 제안이유

- 고성군은 2007년, 동해면 조선산업특구 지정 이후 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양촌·용정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산업 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해 온 군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2023년 국내 대기업 SK그룹의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가 고성에 동지를 틀며 해상풍력발전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군민 모두는 이를 ‘지역경제의 희망’으로 여기며 적극 환영하였음.
- 군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 평가해, 양촌·용정산업 단지 조성공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원해왔으며,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진행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최근 SK에코플랜트가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디오션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는 공시가 있었음.

- 이는 SK오션플랜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언급했던 대기업인 SK그룹이 고성군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단기 투자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비춰짐. 이는 고성의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
- 고성군의회는 고성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이 고성군민을 무시하고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일방적 매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2. 주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 3. 참고사항

- 결의문 송부처: 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 국회(국회사무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SK그룹, 경상남도지사, 고성군수

《붙임》

##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결의안

고성군은 2007년 조선산업특구 지정 이후 지역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3년 SK그룹 자회사인 SK오션플랜트를 유치하여 양촌·용정 산업단지 조성, SK시티 구상 등 해상풍력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SK에코플랜트가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해상풍력 생산기지 조성 사업과 SK시티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며,

총 1조 원 규모의 투자 불확실성,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 그리고 SK오션플랜트 본사 근로자 700여 명 중 대다수가 매각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사 전체 대표들도 매각 반대에 동참하는 등 내부 직원과 협력사 모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고성군의회의는**

군민의 절박한 뜻을 모아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을 단호히 반대하

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SK에코플랜트와 SK그룹은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SK오션플랜트 지분 매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SK에코플랜트는 700여 명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즉각 해소하고, 기업의 단기적 이익보다 고성군민의 생존보장과 지역경제의 안정, 그리고 지역과의 상생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경상남도는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의 가치를 수호하고, 매각 사태로 인한 지역 위협 해소와 국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공적 개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0. 22.

경상남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